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의 지구촌 이야기

B.F. World

2016. 02 vol. 11



비.에.프.월.드는 사랑과 **축복**입니다!



- 03_감사의 글 / 비에프월드 이사장 최남수
- 04_해외봉사단 특집 / 해외봉사 이모저모
- 06_해외봉사단 특집 / 나, 우리 그리고 세계를 돌아보던 시간
- 08_해외봉사단 특집 / 맨 처음 해외봉사
- 10_네팔 긴급구호 / 네팔 대지진을 통한 B.F.World와의 만남
- 11_네팔 재건 프로젝트 / 꿈의 학교 3,4호
- 13_베냉 꿈의 학교
- 14_독거노인 섬김 프로젝트
- 16_B.F.World_History
- 17_비에프월드 뉴스
- 18_후원자 명단
- 19_재정보고 & 후원신청서

Cover story



2015년 여름,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했던 빛나는 추억.

BFW
Blessing Flowers World

발행처 사단법인 비에프월드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인 최남수
편집인 김준기
편 집 비에프월드 홍보팀
전 화 031-873-1691, 070-4271-9646
팩 스 031-873-1692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17
광명비전센터 210호
홈페이지 www.bfworld.org
페이스북 [bfworld1691](https://www.facebook.com/bfworld1691)
디자인제작 환디자인

감사의 글



비에프월드(B.F.World) 이사장 최 남 수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비에프월드를 후원해 주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에프월드는 어느덧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오 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 스리랑카에 꿈의 학교가 세워지고 해외아동결연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4년 라오스 제2의 꿈의 학교를 거쳐 올해는 네팔에 제3,4의 꿈의 학교 공사도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팔은 지난 4월말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큰 아픔을 당했고, 이에 비에프월드는 현지의 상황을 알리고 성금 및 후원물품 모금활동을 통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네팔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었고, 또한 지진으로 무너져 버린 학교를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진행되었던 해외봉사단에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의료, 아동, 문화사역을 진행하며 캄보디아의 어린이들,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였습니다. 작열하는 태양, 사역 중 시원하게 쏟아지던 비를 맞으며 같이 땀박질하고, 밀가루 속에 묻힌 사탕을 먹느라 얼굴에 하얀 가루 범벅이 된 채 웃던 캄보디아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상.하반기 독거노인 섬김 프로젝트와 사랑의 리모델링을 통해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외출도 잘 하지 않으시고 홀로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가 되어 말벗도 되어드리는 그 시간을 어르신들은 참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였으며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의정부 지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비에프월드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에프월드는 초심을 기억하여 지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비전을 공유하며 그 이름처럼 축복을 흐르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귀 가정과 기업마다 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3일, 26명의 **비에프월드** 5기 해외봉사단이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을 더욱 **열정적**으로 보냈던 우리들의 6박 8일을 **지면**에 옮겨보았습니다.

캄보디아 GO~



캄보디아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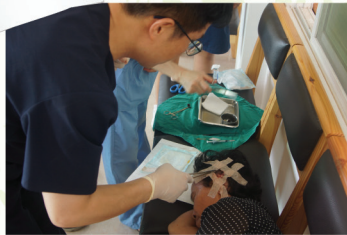


의료사역

깜뽕스프와 우동, 따게오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8월 14일~16일 3일간 내.외과
약 1,000여명, 정형외과 약 500여명, 치과 약 100여명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은 현장에서 즉시 진행하였고, 평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 현지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살살 해 주세요~~



수술중 ~



아~ 하세요.



거 참, 시원하구만~



스케일링도 해드렸어요.^^



내.외과 & 약국팀

아동사역

감뽕스프와 우동, 따게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8월 14일~16일 3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놀잇감과 놀이문화가 부족한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잇감과 방법을 제공하여 친구 얼굴 그리기, 파라슈트, 줄넘기, 한국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등을 소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참여한 모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의류와 학용품 등을 선물하였습니다.



파라슈트 놀이 재미있어요~



사탕아 어디 있니??



친구 얼굴 그리기



종이접기도 배웠어요~



언니, 오빠 따라 율동해요.



둥,둥,둥대문을 열어라~~

기타사역

씨엘럼 지역 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여 현지사역 내용 모니터링 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시간, 아동무료급식(밥퍼사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뽕스프에 있는 비에프월드 부지도 방문하여 캄보디아를 향한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일공동체 밥퍼사역_배식준비중~



설거지는 기본이죠~



다 먹고 난 뒤 청소해요.



비에프월드 부지 방문_감뽕스프

나, 우리 그리고

세계를 돌아보던 시간

BFW
Blessing Flowers World



강선곤 봉사자

3년 전부터 늘 마음에 품었던 비에프월드 해외봉사단에 올해는 꼭 참석하리라 생각하고 모집공고가 나자마자 지원하였다. 올해 해외봉사 지역은 캄보디아였다. 3번의 사전모임을 통해 함께 가는 26명의 단원들과 인사도 나누고 팀별로 준비도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만날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갔다. 우리는 크게 의료사역과 아동사역을 준비하였으며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사진과 캠프코더에 담은 임무를 맡게 되었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의료사역팀은 내, 외과, 정형외과 및 치과로 구성되었는데, 의료진들은 모두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었다. 그들은 해마다 자신들의 여름휴가를 포기하고, 때로는 병원 문을 잠시 닫으면서 비에프월드의 해외봉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놓았을 때 다시 채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동사역팀에 속한 청년들은 어떠한가? 그들 중에는 1년에 단 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여름휴가를 기꺼이 내어 놓은 청년들도 있으며, 다른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손에 쥐려고 할 때 오히려 돈을 내고 캄보디아까지 온 그들이었다. 이렇게 함께 하는 단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의 젊은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그려본다. 주었을 때 채워지는 놀라운 진리가 현실이 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본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우리(비에프월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캄보디아는 비에프월드가 여러 번 해외봉사 등으로 방문한 나라였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 지역인 팜봉스프의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천막과 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아동사역팀 청년들과 금방 친해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즐기고 있었다. 의료사역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치과진료였다. 진료의 특성상 한 번의 진료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간단한 처방과 약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동하지 못해 진료장소까지 나올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에프월드는 팜봉스프 지역에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부지를 가지고 있다. 비전센터에는 마을 주민들의 자립과 진료 그리고 문화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단기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빨리 비전센터가 세워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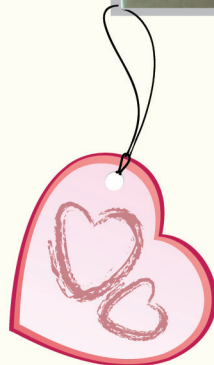
2015년은 전 세계 개발원조 NGO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가 생겨난 한 해였다.

2015년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선포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결의한 해였기 때문이다.

비에프월드의 해외봉사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완성하기 위한 세계의 수많은 해외 개발원조 NGO들의 활동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 조각이면서, 유일한 조각인 것이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비에프월드는 2011년 창립 이래 서서히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해 4월에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재난 지역을 향한 구호활동과 KCOC 및 NPO공동의회 회원단체로 가입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비에프월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봉사단원에서 비에프월드의 정기적인 후원자 자리로 돌아와서 비에프월드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비에프월드의 세계를 향한 날개짓에 한 줌의 힘을 보탬 것이다. 지금 나는 나와 우리와 세계를 돌아보게 했던 지난 여름 해외봉사단 사진을 다시 보며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았던 나를 추억해 본다.



맨 처음 해외봉사

BFW
Blessing Flowers World



홍선미 봉사자

2015년 여름, 나는 처음으로 해외봉사라는 것을 가게 되었다.

2015년도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증간한 한 해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새로운 공부를 하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꿈꾸던 것들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용기가 많이 사라진 그런 2015년도 였다.

2014년도에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했던 공부를 끝내고, 나는 다시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2015년도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그 나라에 맞는 언어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하고 어학공부를 했다.

그러던 중 광명비전센터 1층 식당 앞을 지나는데, B.F.W 캄보디아 해외봉사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하루하루 공부를 해 오던 중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해외봉사를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웃 두 벌 있는 자는 웃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다.

2014년도에 부모님이 지원해 줄테니 해외봉사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제 저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의미가 컸고, 가야할 이유가 생겼다.

나는 의료사역을 맡았다. 정말 힘들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우리 모두 했다. 의료사역은 대부분 어른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잘 이겨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캄보디아는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못한 나라였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벗어날 때 창문 밖으로 인사해 주시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밝았고, 어른들은 친절하였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결국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중 어린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웠다.



맨 처음 해외봉사



아이들은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고 온 많은 아이들은 밝고 귀여운데, 과연 저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을까? 꿈을 꾸면 그걸 도와줄 어른들은 있을까? 캄보디아인들이 자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땐 너무 습하고 덥고 힘들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저 같이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한국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지금보다

좀 더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혹은 지금부터라도 그에 관련되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들이 해외봉사 이전보다 많이 변화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짐작도 못하지만, 하지만 웬지 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해야 할 것만 같고 그 일에 언젠간 사용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에 해외봉사를 또 갈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내가 꼭 봐야 할 그런 그림을 보고 오고 싶다.

해외봉사를 갔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미있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네팔 대지진을

통한 B.F.World와의 만남

긴급지원단원 신 환 규

삶이란 참 이상하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개척되니 말이다. 바로 그 만남(B.F.World)을 연결



해 준 곳이 네팔 대지진이었다. 지난 2015년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56분(현지 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 77km 지역에서 지진규모 7.8의 강진과 5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여 사망 3,904명, 부상 7,200천여명(4.28 기준)이 된다는 보도에 우리 정부에서도 100만 달러의 지원과 119국제구조대 15명

을 파견(4.27~5.6)하기도 했다. 이러한 네팔의 뼈아픈 현실을 마음속에 두고 지나던 어느 날 초등부 카메라를 지원하러 광명교회로 향하던 나는 교회 입구에 걸려있는 네팔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는 순간 멈춰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갈까? 말까? 며칠을 고민하다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나 네팔 가보고 싶다고, 네팔의 현실상과 긴급구호 체계를 몸소 체험하고 싶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가족 모두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다. 난 우리 가족이 네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대답을 해주는 건지 의아해 하며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네팔을 가기 위해 B.F.World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는 순간. 웬지 모를 뿌듯함이랄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막 솟아올라온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네팔 자원봉사를 떠나시려는 광명교회 봉사자 어르신과 함께 사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아직 여진이 남아있으니 숙소 찾기부터 자원봉사 지역 선정, 현지에서 나눠줄 물품 목록 작성 등등... 신참인 나로서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그 중 나에게 맡겨진 것은 카메라 담당. 그래, 진실의 땀을 흘리시는 B.F.World 봉사자들의 땀방울, 현지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한 장의 사진에 남겨 그 역사적 순간들이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PS: 한창 젊음과 열정이 가득하신 어른신들과 함께 긴급지원단원들 모두 힘든 기색 없이 사역을

을 다해주심과 혹시나 신참인 내가 힘들어 할까봐 좋은 말씀과 살아온 인생담도 조미료처럼 살짝살짝 간을 주시는 그런 넉넉한 웃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사역이 있다면 두 팔 걷어붙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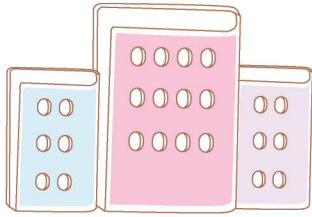
드디어, 2015년 6월8일 늦은 밤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현지에는 박한철 선교사와 사역자 한 분이 우리를 뜨겁게 반겨주셨으며, 최대한 안전한 곳에 숙소를 잡으셨다고 그 쪽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가는 길이 지진으로 인해 다 망가져 간신히 도착했다.



날이 밝자 우리는 현지사역자와 함께 지진피해가 심한 자원봉사 현장과 자원봉사 물품 보급 대상 지역을 사전 답사하기 위해 이동했다. 가는 도중 현지 사역자가 준비해 오신 주먹밥으로 아침을 대신하며 5시간을 이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차가 더 이상 들어 갈 수가 없어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나는 그 순간 남모를 부끄러움이 생겼다. 한국에서는 네팔 자원봉사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TV속에서 본 네팔과 현실에서 본 네팔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나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앞이 너무 암담해 보였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매 끼니때마다 네팔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며 기원했다.

우리는 네팔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적 안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며, B.F.World를 통하여 네팔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사역을 다하고 온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네팔 꿈의 학교

네팔 재건 프로젝트_꿈의 학교 3호, 4호

비에프월드에는 2015년 4월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집과 학교 등 생활터전을 잃은 네팔에 긴급지원단을 파견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였고, 지진 피해지역을 모니터링하여 무너진 학교를 재건하는
네팔 꿈의 학교(3호, 4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최대 피해지역인 신두팔축 지역은 해발 1,800미터의 고산지대이며, 건물의 98% 이상이 붕괴
되어 학생들은 임시 야외텐트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직후의 학교 모습(너덜너덜하면)



지진 직후의 학교 모습(꾼촉면)



붕괴된 건물 안에서 수업중인 학생들



구호물품(학용품) 지급_긴급지원단



기초공사는 튼튼하게!



꿈의 학교가 지어질 임시 천막교실



공사가 한창진행중인 꿈의 학교



우리 학교 빨리 지어지면 좋겠어요



너울뿌르면 건축현장 지붕구조가 만들어짐



완성도를 높여가는 꿈의 학교



꿈의 학교를 기다리며



천막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네팔 꿈의 학교는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수도 카트만두의 외곽지역 신두팔촉군 너울뿌르면의 초등학교와 곤촉면 중학교, 카트만두 인근 초,중학교를 재건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베냉 꿈의 학교



머나먼 아프리카 베냉에도 비에프월드 꿈의 학교(5호)가 지어졌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학교를 비에프월드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고,
완공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베냉 꿈의 학교를 소개합니다.



공사를 미처 시작도 못한 학교터



짓다 만 학교를 바라보시는 구마비 선생님



완공된 학교를 둘러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기뻐하는 꿈의 학교 학생들



까만 꽃 네모필라와 닮았죠?

베냉 꿈의 학교는 2015년 9월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여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기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까만 꽃이 만발한 듯 하네요.
아이들의 꿈도 이 꽃처럼 활짝 피우길 바랍니다.

사랑 나누기, 섬김 더하기, 행복 곱하기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늦가을, **비에프월드**는 벌써 네 번째 **독거노인 섬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내리는 비쯤은 조금 맞은들 상관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여 준비를 하고, 각 팀별로 이동하여 어르신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몇몇 어르신께서 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엔 외출도 잘 안하시고 텔레비전을 벗삼아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오늘따라 어디를 가신걸까요?

미리 방문하여 달력에 동그라미 치며 그날 꼭 계시라고 말씀드렸건만, 하필 오늘 일이 생기셨다며, 따님이 오라고 하셨다며, 병원에 계시다며 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돌아갈 순 없다고 어르신들께서 다니시는 복지관 담당복지사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어르신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갑작스레 방문드렸는데도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어르신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필품 키트와 전기요를 보시고, 꼭 필요한 것들이 었다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드리는 우리도 마음이 기뻐합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행여 감기라도 걸리실까 창문에 에어캡도 붙여드리고~



오늘만큼은 내가 손자, 손녀가 되어드리자는 마음으로 안마도 해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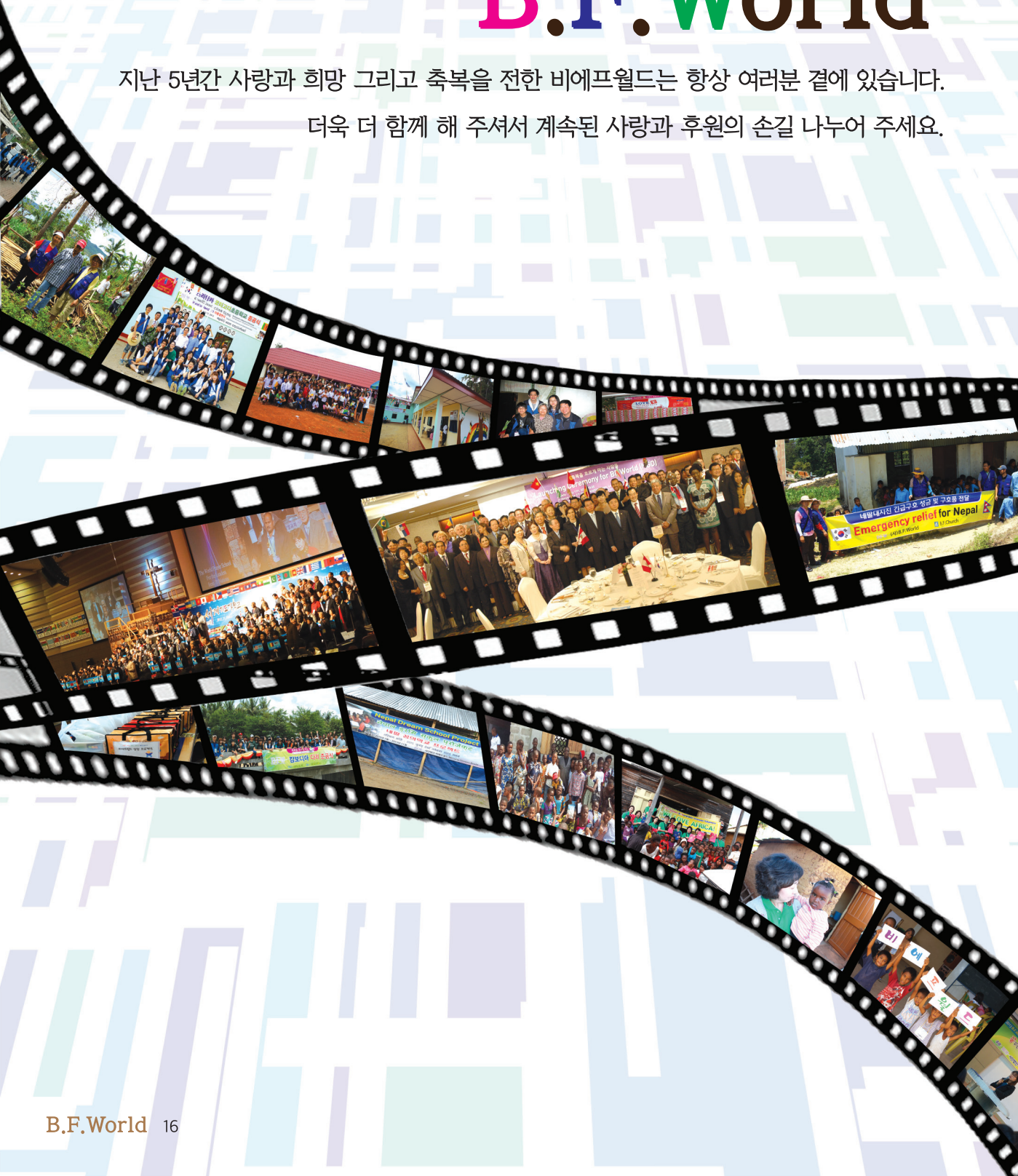
어르신들은 봉사자들 덕분에, 봉사자들은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창문에 붙여드린 에어캡과 바닥에 깔아드린 전기요, 그리고 함께 한 시간을 생각하시며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바라 봅니다.



B.F. World

지난 5년간 사랑과 희망 그리고 축복을 전한 비에프월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더욱 더 함께 해 주셔서 계속된 사랑과 후원의 손길 나누어 주세요.





비에프월드 NEWS



어린이와 함께 하는 행복나눔 기차체험

지난 8월, 코레일네트웍스와 함께 차상위 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열차 탑승의 체험과 철도박물관 견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 관내 어린이 39명과 비에프월드 인솔자 3명,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함께 하였으며, 참여한 어린이들은 무더운 여름방학 중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하반기 독거노인 섬김 프로젝트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요즘 시대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가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독거노인 섬김프로젝트가 지난 11월 7일, 48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의정부시종합복지관과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도움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독거노인 15가정을 선정하고 봉사단과 함께 방문하여 각종 밀반찬과 생활용품 키트 전달 및 방한용품 설치, 말벗봉사, 집안일 돕기 등을 하였다. 이번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도, 참여한 봉사자들도 모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비에프월드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해외지부 크리스마스 선물 발송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해외의 우리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발송하였다. 후원자들이 보내 주신 많은 의류와 함께 물류창고에 있던 이월상품들을 기증해 주셔서 푸짐한 선물을 보낼 수 있었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라오스와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



라오스 중고PC 지원

지난 12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내 중고PC를 수집, 정비하여 해외저개발국가에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에 선정되어 PC 40대가 라오스 톰미싸이 지역의 11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 나누어 보급되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IT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과 군 교육국의 행정지원을 위해 쓰시길 기대한다.



네팔 꿈의 학교 재건

작년 봄, 대지진으로 붕괴된 네팔의 학교를 재건하는 꿈의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진의 진앙지로 큰 피해를 입은 신두팔축 너울뿌르와 카트만두 인근 소외 지역 계층의 초·중학교를 재건하는 공사를 2015년 7월에 시작하여 4월에 준공 예정이다. 네팔 꿈의 학교를 통하여 네팔의 아이들이 멋진 꿈을 꾸고,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Dreams come true~!!



러브미 전달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 드렸다. 의정부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센터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NGO 이주민월드비전센터의 유학생들에게 전해 드리며,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기원했다.



비에프월드 이사회 및 정기총회

비에프월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정기 이사회와 총회가 광명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2015년도 사업관련 보고(사업결과, 결산, 감사결과와 보고) 및 2016년도 사업계획과 2022비전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에프월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과 비전을 나누며 한해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비에프월드에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올해에 더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비에프월드가 되길 바란다.



창립 5주년 탁상달력

창립 5주년을 맞이한 비에프월드에서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지난 5년간 비에프월드에서 진행된 사업을 사진으로 담아 제작한 달력을 보여 앞으로도 더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길 바라며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의 손길

나눔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기업 및 단체후원

(주)가우21 JBN 광명 비즈니스선교회 광명교회 인앤아웃스포츠 ㈜성우라이프사이언스 동구계약 한미약품 삼천당계약 메디카코리아 한독약품 King's잉글리쉬학원 언약글로벌기독교학

개인후원자명단 (2015년 5월~ 12월31일까지)

(주)비바피오피 HS 강경숙 강경자 강남덕 강동근 강복임 강서경 강선곤(전현숙) 강성문 강성인 강순이 강연희 강원길 강인자 강진성 강진희(여정은) 강조룡 강현옥 강희경 고성예 고윤혜 고인숙 고춘자 고효석 구구회 구명옥 구희순 권순덕 권순창(허일화) 권영길 권영택 권오승 권중필 금가영 길경문 김 전 김갑순 김경순 김경실 김경아 김경주 김경미 김경희 김규란 김금분 김금숙 김금식 김금자 김기숙 김기순 김기혁 김난신 김난주(이춘득) 김남주 김남진 김남예 김대중 김동선 김동원 김매자 김명숙 김명자 김명희 김문정 김미성 김미숙 김미옥 김미정 김미화 김민경 김민정 김민희 김병국 김병순 김복인 김복희 김상우 김선미 김선옥 김선자 김선희 김성남 김성미 김성석 김성은 김정준(강혜정) 김성희 김세엽 김세환 김수경 김수정 김숙자 김숙진 김순금 김승태(지영희) 김승훈 김성내 김시은(강혜정) 김시우 김시한 김신용 김연숙 김연지 김영강 김현곤 김영란 김영미 김영순 김영순 김영재 김영주(전용훈) 김영화 김옥분 김옥선 김옥자 김용애 김용철 김용훈 김우순 김옥(이효수) 김유정 김윤희 김윤식(금강섭유) 김은기 김은빈 김은우 김은수 김의숙 김인숙 김인자 김일경 김장순 김정대 김정선 김정에 김경실 김경자 김정현 김경화 김중규 김중남 김중복 김중수 김중순 김중현 김주연 김주호 김준기 김지연 김 진 김진나영 김진성 김진수 김진영 김진옥 김진필 김찬미 김창원 박과진 박창순(홍은선) 박철균 박철희 박현정 박혜숙 방대한 방영수 방영재 방필남 방인원(김우창) 방중호 배금분 배영자 백경호 백덕기 백성자 백승준 백승희 백영분 백은정 백인자 백춘자 변정민 사제옥(사은혜) 서경석 서 구 서미옥 서은화 서수원 서형화 석산옥 석정호 성수정 소문정 손금자 손병권 손성식 손유순 손윤희 손일찬 송미정 송미희 송순영 송주인(이경옥) 송철승 신부식 신세형 신윤철 신윤일 신일순 신재현 신주희 신춘자 심달환 심민규 심선에 심소정 심소희 심순진 안경민 안숙희 안영환 안예민 안중희 안중희 안지섭 안혜순 양대원 양덕선 양미연 양송희 양순자 양승은 양윤섭 양은정 양정원 양진모 양철홍 양지춘 양홍민 양희철 엄소영 엄유호 여정은 오경권 영유아부(광명교회) 오기호 오미숙(이은빈) 오선에 오승식 오영선 오은자 오정순 오종진(이경숙) 오춘섭 오필석 오하엘 우경숙 우영식 우은희 우창민(윤정기) 우한나 원영수 원한숙 위배선 위종원 위지은 유경선 유미진 유성예 유연경 유예상 유옥선 유인숙 유인영 유예준 유예담 유예찬 유정화 유정희 유제원 유준복 유진숙 유연주 유혜숙 유형구 유혜경 유희경 윤금자 윤나라 윤덕순 윤명현 윤성대(임신혜) 윤순상(송민정) 윤순옥 윤영옥 윤옥기 윤일영 윤재원(윤명연) 윤정숙 윤정용(최성혜 윤서연) 윤정희 윤준노 윤준호(윤명연) 윤찬희 윤창로 은기숙 이강순 이경란 이경민 이경옥 이경재(윤명연) 이경희(홍지은) 이광식 이광희 이규숙 이금란 이기쁨 이나리 이난희 이덕성 이덕순 이도경 이동복 이동은 이동형 이동훈 이동희 이무리 이만재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철 이미경 이미애 이미자 이민자 이민지 이민환 이병록 이병현 이보람 이보훈 이복자 이상규 이상기 이상선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화 이성은 이성현 이수현 이숙경 이순이 이순주 이순현 이슬아 이승민 이시교 이연기 이연수(장수영) 이연화 이영란(배진희) 이영숙 이영호 이영화 이영훈 이예빈(이유빈) 이옥선 이옥희 이원자 이유미 이윤근 이은경 이은숙 이은구 이재명 이재숙 이재선 이재준 이정진 이정애 이정용 이정호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식 이주경 이주희 이지선 이지영(우정곤) 이지혜 이충림 이태성 이한규 이향숙 이현구 이현순 이현애 이현지 이현자 이형주 이해경 이해진 이호용 이화려 이효성 이효영 이희숙 이희순 이희영 이희자 이희정 인준형(김영실) 임동혁 임명식 임문숙 임수건 임옥숙 임용수 임재규(박수경) 임종호 임현수 장미순 장상미 장영주 장영희 장은심 장인순 장춘자 장태경 장하준 장한우 장원주 장원진(서정옥) 장화식 장효미 장효선 전가은 전경숙 전광현 전명진 전영민 전수지 전승호(전희연) 전재일 전진희 전정아 전창대 전창원 전현미 전현숙 전현지 정공훈 정군자 정대순 정대평 정동우 정명희 정문순 정미경 정미향 정보집 정선아 정세영 정순덕 정순자 정영란 정애은 정우일 정은궁 정은미 정은주 정은화 정정권(정해강) 정정화 정종환 정지선 정태희 정향영 정현철(정미혜) 정화숙 정혜원 조경원 조기복 조기향 조명금 조명숙 조병혁 조서연 조선례 조성자 조성희(조상기) 조수임 조신애 조연미 조영삼 조영숙 조영준 조옥련 조은영 조인숙 조재옥조정식 조정순 조정일 조진호 조찬미 조혜경 조효숙 조홍우 조희숙 조희옥 주순옥 주영자 주운남 지정연 진미량 진미영 진순주 진원화 차미경 차순영 차일선 차정열 차하나 채경미 채정희 천명환 천소연 최낙권 최남철 최덕순 최동세 최명희 최명희 최미성 최분녀 최성근 최성순 최성옥 최성희 최소영 최숙자 최순자 최승달 최승순 최신길(이혜순) 최영상 최영숙 최영옥 최옥자 최우성 최은선 최은혜 최인숙 최재숙 최정안 최준근 최준문 최준환 최준현 최준희 최진구 최진수 최필호 최현숙 최현준 최혜경 최혜빈 최호철 추성남 추연수 추준호 추향자 표선홍 하경희 하수정 하인자 하중훈 하혜경 한구열 한미선 한미영 한민경 한상연 한선에 한순자 한영숙 한요순 한은주 한일순 한준수 한창호 한혜숙 함다은 함연덕 함주원 함현주 허경아 허기영 허선자 허영희 허원석 허은숙 허은조 허일화 허장희 허정희 현경만 현금례 현혜옥 홍경숙 홍경혜 홍기운 홍미정 홍복기 홍수명 홍순재 홍순호 홍은경 홍이남 홍정순 한향수 황경태 황규진 황남일 황도자 황동수 황미하 황서원 황수정 황순용(박인숙) 황양옥 황옥순 황옥영 황은숙 황은아 황인례(황영근) 황승민 황정민 황진미 황철기 황태일 황현중(남성미) 황혜미

5월	총 712건 59,897,593원 (네팔공의학교기금포함)	6월	총 713건 36,488,000원 (2015 해외봉사단비포함)
7월	총 704건 22,056,096원 (2015 해외봉사단비포함)	8월	총 696건 13,066,500원 (2015 해외봉사단비포함)
9월	총 698건 29,600,000원 (베냉공의학교기금, 사회복지협회보조금포함)	10월	총 688건 17,674,693원
11월	총 671건 12,620,000원	12월	총 680건 16,138,460원

신규후원자

이정호 서수원 한향수 정혜원 최수연 박철희 유연주 사제옥사은혜(재후원) 언약글로벌기독교학 이현자 최필호 지정연(아동결연후가) 전영임 박명자 최동세 유예준 유예찬 유예담 김옥자 홍순호 이광희 김현기 김동선 김경실 이선민 이예준 김경미

비에프월드 재정보고 (2015년 5월 1일 ~ 12월 31일 현재)

수입

항 목	내 용	금 액 (원)
전월이월금		24,471,742
국내/해외사업후원금	개인, 기업, 교회,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지원을 위해 내는 후원금(CMS <자동이체> 후원 포함)	207,596,832
기타수입	수 입 이 자	53,130
기증물품	의류 및 의약품	22,121,450
총 수입		254,242,884

지출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국내사업비	지원금 (의정부장애인부모회 외)지급	7,235,000
	사랑의식탁(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13,595,100
	독거노인심검,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업진행비	1,596,450
	사랑나눔 러브미 사업비	1,614,700
	현물후원(코레일과 함께하는 기차여행)	1,008,000
해외사업비	해외사업운영비	387,000
	라오스 사업비	11,234,497
	캄보디아 사업비	2,350,383
	베냉, 네팔꿈의학교 진행비(학교건축관련)	55,398,169
	해외아동결연후원금(5개국)	19,342,827
	2015 해외봉사	34,482,096
	현물후원	8,903,950
후원관리 및 개발비	CMS수수료, 금융결제원요금, 홈페이지 관리비, 문자충전료 외	9,520,960
운 영 비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제세금, 전산이용요금외	46,952,150
기타지출	네팔꿈의학교 미지급금	7,749,339
차기사업준비금	2015년 12월 31일 이후 사업 준비금(BF shop 포함)	32,872,263
총 지 출		254,242,884

후원신청서

이 름			
전 화 번 호	TEL	H.P	
이 메 일			
우편수령주소			
CMS후원(자동이체)	☐ 월 1만원	☐ 월 3만원	☐ 월 5만원 ☐ 기타()원
예 금 주		주 민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 매월 5일	☐ 매월 20일	☐ 매월말일 *미납시 익월 2회분 이체됩니다.
후원과 동시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아동결연후원은 월3만원이며 이체일은 매월 5일입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사단법인 비에프월드) ☐ 국민 536201-01-344056 신한 100-027-256395 ☐ 신탁 131-017-104424		연락처 (사)비에프월드(B.F.World)사무실 Tel. 031)873-1691, 070-4271-9646 Fax. 031)873-1692	

UN SDGs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를

-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자고 결의하는 국제적 협약
- 2015년 9월28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되는 국제사회 최대목표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Goal 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3: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Goal 4: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Goal 5: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6: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Goal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0: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Goal 11: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Goal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Goal 15: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Goal 16: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Goal 17: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출처: UN지원SDGs한국협회>